

직장인들 연월차 내고 “대~한민국”

가족들과 광주 월드컵경기장 단체응원 참가

회의실 대형스크린 설치...김밥 등 간식 준비도

‘어제인 2002년’

18일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흥명보호가 러시아와 첫 경기를 갖는데 이어 23일·27일에 잇따라 경기가 열리게 돼 월드컵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을 단체응원에 참가하기 위해 연월차를 내는가 하면, 공기업 또는 일반 기업들도 회사 안에서 다양한 단체응원 행사를 준비 중이다. 개최자인 브라질과 한국의 시차(12시간)로 인해 출근 시간과 비슷한 때 경기가 열리는 데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감안, 떠들썩한 거리응원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회의실 응원’ 또는 ‘소규모 응원’ 등을 준비한 회사·직장인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 회의실에서 응원해요”=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8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본부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단체 응원을 펼친다. 다목적회의실엔 가로 3m·세로 1.8m 크기의 스크린이 설치된다.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7시까지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출근토록 한 뒤 김밥·토마토·음료수 등 아침과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내 응원을 함께 하면서 직원들간 단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사업부는 이날 광주시 동구 급남로 사업부 4층 회의실에서 단체응원전을 한다.

이날 응원전에 직원 20~30명이 참석하는데, 광주사업부는 응원전에 나선 직원들에게 김밥·치킨 등 먹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사업부는 18일에 이어 한국전이 열리는 23일·27일에도 회의실에서 단체응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차 내고 응원 나섭니다”=광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모(35·북구 두암동)씨는 한국전이 열리는 18일·23일·27일 사흘간 연차를 냈다. 한국전 경기가 중계되는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단체응원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붉은악마 광주지회 소속 회원인 이씨는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와 달리 조용한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한 탓.

이씨는 “직장 동료가 배려해준 덕분에 연차를 낼 수 있었다. 애초 아내와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이른 새벽에 경기가 열린 탓에 홀로 응원전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보험회사에 다니는 정모(37·서구 화정동)씨는 23일 하루 연차를 냈다. 이날 알제리와 경기가 새벽 4시 열리는 점을 감안, 부부 동반 응원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정씨는 “친구 3명이 이날 모두 월차 또는 연차를 사용기로 했다. 단체응원 보다는 집에서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며 “출근 시간과 겹친 월드컵에 걱정이 많았는데, 연차를 사용하다 보니 눈치보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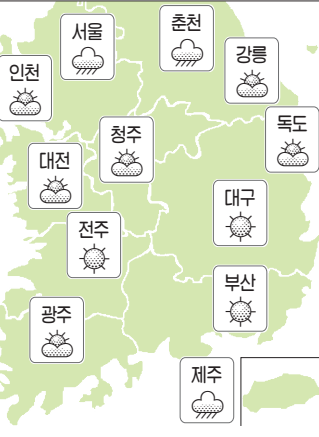
해돋이 05:18 해질 23:45
해짐 19:49 달짐 10:49

‘질은 안개 선박 운행 주의’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었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 많음	18/31	보성	맑음	16/30
목포	맑음	18/26	순천	맑음	17/30
여수	맑음	19/27	영광	맑음	16/29
나주	구름 많음	16/31	진도	맑음	16/27
완도	맑음	17/28	전주	맑음	18/30
구례	구름 많음	15/31	군산	맑음	18/28
강진	맑음	16/29	남원	맑음	17/30
해남	맑음	16/29	축산도	맑음	17/23
장성	구름 많음	16/30			



◇바다 날씨

구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남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남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동해	남바다	북동~동	1.5~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식중독	69
운동	50
빨래	6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06	11:12	18:20	23:22
여수	00:40		06:50	
	12:59		18:52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	☁	☁	☀	☀	☀	☀
18/32	20/29	21/27	21/26	21/27	20/28	20/29

월드컵 ‘폭주족과 전쟁’

광주경찰, 한·러전 이후 거리 난폭운전 집중 단속

시민안전 위협 예방...주요 집결지·이동로 분석

“빠라빠라빠라밤~. 게 셋거라...”

경찰이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난폭 곡예운전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과의 전쟁에 나선다.

매년 월드컵에서 한국전이 열리는 날은 폭주족들의 대목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브라질 월드컵 한국전(18일·23일·27일)이 열리는 날 집중 단속에 나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은 17일 폭주족 주요 집결지와 이동로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동향분석으로 월드컵 폭주족 분위기를 제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북부경찰, 서부경찰 등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청에서 연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전 단체응원전 대비 경비대책 및 교통관리계획’ 회의에서 폭주족 단속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폭주족들은 한국전 단체응원전이 펼쳐지는 날 광주시 서구 영주동 월드컵경기장과 북구 임동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에 소규모 단위로 집결, 운전자들을 위협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체응원전이 펼쳐지는 장소에 경찰 가용인력 100명을 배치, 음주·신호위반·과속주행·안전모 착용·불법개조 등 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고화질 캠코더 등을 활용한 채증 영상으로 폭주족을 사후 추적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언론 등을 통해 폭주 행위 자체를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월드컵경기 이후 폭주족들이 마치 애국지사인 것처럼 3·1절과 광복절에 태극기를 걸고 다니면서 범법행위에 명분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면서 “폭주족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공동위험행위) 오토바이를 무리지어 타고 다니면서 곡예·난폭운전을 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핵폐기 촉구 서명

광주 YWCA 회원 20여명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탈핵운동 ‘불의 날’ 선포식을 갖고 핵에너지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지정해 탈핵운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지정해 탈핵운동을 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남 축구대회 참가 학생들 집단 식중독 증세

김밥 먹은 중·고교생 174명

해남에서 청소년선수축구대회에 참석한 중·고교생 174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7일 해남군 보건소에 따르면 해남지역 중·고교 등 11개 중·고교 학생 174명이 지난 16일 정오 해남군 해남읍 우술국민체육센터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구토·설사·복통 등을 호소했다. 이중 31명은 증세가 심해 해남병원·

해남 한국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각 중·고교 축구선수들이 이날 학생은 이날 청소년선수축구대회 참가자 우술국민체육센터에 찾았다가 점심식사로 김밥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한 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김밥을 만든 식당의 갈·도마 등도 수거해 조사를 맡겼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대법원, 과도한 재판 부담 줄인다

‘상고법원’ 설치 추진

대법원이 과도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고심 사건을 나눠 처리할 전담 법원인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상고심 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심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

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상고심 기능 강화와 관련, ▲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배치하고 ▲ 일반 상고심 사건은 상고심 법원이 처리하며 ▲ 대법원은 법령 해석·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www.oceanocc.co.kr

선불카드 할인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기명1인	무기명1팀(전원)
주중/주말	40%	50%	40%

공통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중	66,000
	주말(공휴일)	99,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1 6월 카트로 면제(4인18홀 라운딩시)
Event2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2만원/주말4만원(카트로 포함)

061-536-3953